

보도자료
국정감사 종합평가
2024.1.3.(총389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우) (우.0850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2 코오롱에스텐 10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의 국정감사는, 그나마 6.25전쟁과 독재를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세계10위의 선진대국이 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서둘러** 상시 정책청문회 등 365일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면할 수 없다

국감(21-4) : “R&D” “문정부 통계조작” “이재명 수사” 국감 “C학점”

- ▲ 야당(민주당)은 의정평가에 국감 제외, 정책대안보다 정쟁성 비난만
- ▲ 여당(국민의힘)은 전(前)정부탓만, 리더없는 맥빠진 국감, 용두사미

- ▲ 강서구 보선, 4년전 총선도— ‘벌거벗은 임금’ 처럼 ‘부정선거 의혹에 침묵’
 - 국정원·선관위 등의 선거시스템 합동 보안점검 결과, 100% 부정선거 가능
- ▲ 선진국처럼 365일 국감은커녕 최소기간 <국감법(30일)>마저 18일로 단축
 - 모범 보여야 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질의 1번도 없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체 일정 중 2일만 출석/질의
 - 감사일수는 20년전인 2004년(201일)보다 줄고(138일)
 - 감사대상기관은 역대 최다(791개 기관) - 위원회별 평균 8.8일 형식적 국감
 - 몰아치기 국감 : 10개 이상 기관 동시감사, 164개 기관은 질의 한번도 못받아
 - 증인만 넘친 국감 : 기관증인 말고도, 출석한 일반증인만 157명, 참고인은 95명
- ▲ 해마다 늘어나는 현장시찰, 꼼수국감?(출석 의원도, 내용도 ‘깜깜’)
 - 현장점검 및 현장시찰도 출석 공개하고, 활동내용을 동영상으로 국민께 알려야
 - 산업위(이재정)의 2일 동안 여당 빠진 채 제주도 시찰(수소 시설 등 방문)
 - 문체위(이상헌)는 금요일 마다 시찰(전국 체전 개막식 참석 등)
- ▲ 정말 ‘민생’ 을 위한 국정감사이었나?
 - 기승전 양평 : 국토위의 국토부, 도로공사 국감, 행안위 경기도 국감 등
 - R&D삭감 : 과방위(과기정통부 국감당시,392회, 1분 5초마다 1번꼴),기재위(10.19. 기재부,169회),산업위(산업부,81회)등 83개 국감장에서 거론
 - 후쿠시마 :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등 15개 상임위 61개 국감장서 최소 487회 거론
 - 가짜뉴스 : 방통위 국감 337회(1분 20초에 한번)등 68개 국감장서 724회 거론

《국감종합평가회 및 국민복상 시상식 : 2024. 1. 3.(수) 15:00,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 [평가개요] 지난 25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평가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외 22인)은 2023년 제21대 국회(21-4) 국정감사에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65개 대학 법정치봉사단이 연대하여 국회 안에서의 국정감사는 온라인으로, 서울, 부산, 세종, 인천, 수원 등 국회 밖에서의 국정감사는 현장 모니터링

까지 병행하는 등 전방위 온·오프라인으로 모니터하여 국감을 종합평가합니다.

2. **[국감성적]** 우리 국감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4년차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 지 36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소야대 두번째 국감인 금년도(21-4) **국정감사를 "C학점"<작년도 D학점>**으로 평가합니다.

①총선이 코앞인데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온갖 선거해킹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음모론' 정쟁만 하고, ②이·팔전쟁으로 북장사포에 대한 위험성이 노정되었음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며, ③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으면서 **국감도중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로** 파행을 조장하고, ④경제 민생 위기 속에도 '국가 말아먹고 있다'. '경제폭망 기우제' 등 막말 정쟁(10.19. 기재위)이 일어났으며, ⑤국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만 부각해, 윤정부 1년 6개월간의 부정부패나 예산 낭비요소 지적 등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에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참고» 제20대 국회 첫째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F'학점**을 받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기승전조국' 국감으로 **'D'학점**이었고, 21대 국회 1차년도는 **코로나(COVID-19) 첫 국정감사로 'D'학점**이었고, 2차년도는 **'대장동' 국감으로 'C-'학점**이었으며, 3차년도 국감 역시 **팬덤국감으로 'D'학점**이었음.

3. **[국감특색 및 요약]** ①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1년 6개월 간의 국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이자, 외교·안보·경제 등 위기 속 도약이나 후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임에도 첫째,** 지난해와 같이 당의 명령이나 받은 듯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말꼬리 잡기와 끼어들기, 의원간 고성엔 여전히(와중에 행안위 10.13. 중앙선관위, 환노위의 10.12.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성비하, 모욕발언으로 유감·사과도) **둘째,** 감사준비, 자료준비를 이유로 휴감하면서 두세차례 나눠서 해야 할 것을 하루에 몰아 국감을 하고, 현장 시찰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셋째,**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낭비, 부정비리, 국정운영의 제도적 미비 등 국정전반을 점검해서 차년도 예산심사와 입법에 반영하는 헌법상의 막중한 권한·책무임에도 예산낭비, 부정비리 지적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듯이 하는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② **모범을 보여야 할 여야 대표**는 국정감사에 소홀히 하여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국정감사장에 일부 출석하기는 하였지만 국회공보와 국회회의록에 출석여부가 차이가 날 정도로 잠깐 왔다 간 정도이며, 질의는 한번도 없었고, 거대야당의 수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재판 때문에 국감후반 국방위의 해군본부부터 2일 참여하였으나, 흥분도함의 명칭 변경 여부를 묻는 등 이념관련 첫질의를 하였고, 종합국감에서는 9·19군사합의 문제를 조명하면서 북한에 비해 압도적 군사비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압, 억압'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해 안보·국방에 있어서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신원식 장관 : 다양성 때문에 존중하지만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 ③ 국가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 간사 김영호·이태규)는 증인 불출석 논란으로 감사를 일시 정지하거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해 반쪽위원회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증인채택을 하였습니다(10.13. 감사 후, 정택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국감 증인 채택).

- ④ 이스라엘 대한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이·팔 전쟁의 전운 속에서 외교를 전담

하는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간사 이용선·김석기)의 국정감사가 첫날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으로 허비하더니, 국감 둘째날에는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과 관련해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해 국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회했습니다.

- ⑤ **2021년**에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 의원석 손팻말’ 설치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여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거나 귀한 국민의 시간을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허비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하였고, **교육위원회** 역시 팻말이 설치되었으나,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방부장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피켓이 있었고, 결국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간사 김병주·성일종)가 국방부장관 임명관련 대립과 팻말논란으로 귀중한 국민의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2023.10.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의 한국방송공사 국감(10.17)에서도 피케팅 때문에 오전에 일부 파행을 하였습니다.
- ⑥ 감사가 아닌 **범죄수사같은 국정감사**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문 정부 통계조작 수사, **국토교통위원회**의 양평고속도로 계획변경, **교육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참사와 이태원 참사 책임공방과 관련된 감사였습니다.
- ⑦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도 국감도중 시찰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전남 목포에 있는 전국체전 참가 등을 위해 2주 연속 금요일마다 현장시찰을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역시 10월 16일과 17일 제주도에서 수소 공장 방문 등 시찰을 하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반쪽 시찰이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는 이·팔 전쟁으로 인해 국정감사계획서를 두 번이나 수정하면서 4개 반을 나눠서 비행시간이 국정감사 시간보다 더 걸리는(?)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주 이스라엘대사관 국감은 취소),
- ⑧ 역대 최다의 피감기관을 동시 국정감사로 하다 보니, 기관증인까지 거의 대부분 하루 종일 질의 한번 받지 못하고, 앉아 있다가 가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 ⑨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도를 넘는 언행**이 지적되었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답변태도가 오만방자하게 저게 뭐냐’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고, 종감에서는 감사원 감사위원 6명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였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감사에서는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위원의 자료를 들춰보는 것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에서는 피감기관 증인이 의원실에 감사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감사(10.17)에서는 기관증인이 이사장승인도 없이 출국(정권현 언론재단 상임이사, 이사장 결재 없이 직원 3명과 일본행)하여 질타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감사(10.20)에서는 기관증인인 공영홈쇼핑 감사가 ‘이재명 특보’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질의를 받던 중 답변내용과 태도가 문제되어 국감이 파행되기도 하였습니다.

4. [의원평가] 제21대 국회의 4번째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국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 수는 포지티브 운동을 하는 본 모니터단의 성격과 노선에

비추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5선의 서병수, 정진석 의원 등 다선 중진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원의 25%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가. **현장모니터링과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질의횟수와 질의응답 시간**(본질의+보충질의+추가질의 합산횟수 평균), **질의내용 전체를 종합 수집하였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예산집행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정책관련 문제점 지적,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내역 점검여부**를 5단계(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과 해당사항없음 1점)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질의 횟수 이상 질의, 대안 또는 법과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은 가점하고, 중복 질의**(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 질의한 경우) **질의 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질의시간 안지키기, 상대방 의원 비난)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딴짓) **국정감사 방해**(파행유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국감방해) 등은 **감점하였고, 추천 및 지적의 경우에는 ① 적시성(필요성), ② 실효성(논리성), ③ 충실성, ④ 국익/공익성, ⑤ 공정성** 등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의 경우** 현장모니터위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65개 대학 청년대학생 등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하였고(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니터단에서 모니터·분석·확보한 자료와 맞는지 내용을 비교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국감선정 원칙대로 국감기간 중 국감과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하고, 국감불참 2일 이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감우수의원(국리민복상)은 각 상임위별 상위 25%내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겸임 상임위의 경우에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의원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다. **이번 평가에서 모범의원**으로, 최다선 6선이면서도 정확한 자료와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정책질의로 국감의 생기를 불어 넣은 **박병석** 의원(외교통일위), 국회부의장의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초선과 같은 열정으로 정책감사와 따끔한 질책을 아끼지 않았던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과 **정우택** 의원(행정안전위)을 선정하였습니다.

라. **이번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비중있게 평가하였고, 여야의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무사히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를 높이 평가했으며, 모니터단 협조 등 국감 공개원칙도 실질적으로 지킨 3선의 **김도읍** 법사위원장(국), **한기호** 국방위원장(국)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민)을 선정하였습니다.

5. [대학생 법정치 봉사단의 모니터후기]

◆ **청년대학생들은 국정감사 모니터활동의 보람과 금지**---▲국가기관과 국회의원들이 적절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보람(연세대 권○은), ▲학생이자 국민으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국가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 같아 뿌듯(고려대 김○정),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국회와 정부의 행보를 들여다보는 감시자의 역할에 일조한 거 같아 뿌듯(경북대 김○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부 견제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실현한 것 같아 뿌듯(충남대 김○은)

◆ **막중한 책임감**---▲아침 일찍 시작하여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국정감사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 공간에 내가 있고, 거기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뿌듯했고, 많은 용어들과 이슈들, 대검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

점들을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서강대 이○우)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대학생으로서 더더욱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게(홍익대 윤○린), ▲공기업 인턴을 하는 도중에 국정감사 모니터링 참석 (숭실대 김○석)

◆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대부분의 국회의원이 4차질의 하며 성실하게 질의를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감사를 하기 위해 매우 철저하고 신중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느꼈다.(서울대 강○승), ▲의원들 모두 열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숙명여대 고○진), ▲정치적 화제성을 위한 질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들, 문제들의 해결 요구, 대응책, 향후 과제 등을 질의한다는 것(연세대 오○석),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단면적인 모습들만 보고 판단했던 것들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 계기(순천향대 권○은), ▲잘못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정을 요구하는 점도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국민대 김○연),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가 시행되는 모습(숙명여대 권○현) >>

◆ **이번 국감에 대한 아쉬움**---▲아무리 즉석에서 질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개선할지 혹은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해 간단히라도 방향성을 제시해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연세대 장○선), ▲법원은 정치권과 독립되어 재판하여야 하는 기관인데 여야 의원 모두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소모적인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서울시립대 오○경), ▲대통령과 작은 연관성만 있으면 정책 질의의 방향은 대통령의 정책비난, 비판으로 시작되어 피감기관은 그것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경북대 우○욱),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에도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 억지 주장이 펼쳐지는 모습들도 간간히 등장(고려대 김○윤), ▲여야의 정쟁은 국정감사를 지켜본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씁쓸하게 만들었을 것(한국외국어대 황○선)>>

◆ **국민과 유권자로서의 다짐**---▲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정감사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성균관대 최○원), ▲법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연세대 박○은), ▲앞으로도 정치적 상황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겠다(한양대 홍○우), ▲평소에도 주요 국가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의 크고 작은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서강대 채○진),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격언이 있다. 국가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법률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알 수 있었다(이화여대 박○영),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관심을 갖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잘한 국회의원을 뽑아 더 나은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중앙대 이○현)

6. **[모니터사회]**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회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국가기관 구성을 이루는 핵심인데, 이 한 표의 신성한 행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부작용이 있는 사전투표·전자개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붙 임 : 국정감사(21-4) 종합평가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1부. 끝.
 《상세한 분석·평가(389쪽)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 참조바랍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6

2023년도 국정감사(21-4)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25년 전통의--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상) (가나다 순)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	박병석 전반기 국회의장(외교통일)
정우택 국회부의장(행정안전)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국)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민)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원회	선정 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존칭 생략, 가나다순>> 정당표시 :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국)
국회운영	3	김한규(민) 신영대(민) 전주혜(국)
법제사법	4	소병철(민) 송기현(민) 유상범(국) 장동혁(국)
정무	6	강민국(국) 김성주(민) 윤창현(국) 윤한홍(국) 이용우(민) 조응천(민)
기획재정	7	고용진(민) 김주영(민) 류성걸(국) 박대출(국) 송언석(국) 유동수(민) 정태호(민)
교육	4	도종환(민) 서병수(국) 유기홍(민) 이태규(국)
과학기술정보통신	6	고민정(민) 김병욱(국) 박성중(국) 이인영(민) 조승래(민) 홍석준(국)
외교통일	4	박홍근(민) 윤상현(국) 전해철(민) 정진석(국)
국방	4	기동민(민) 성일종(국) 안규백(민) 이현승(국)
행정안전	5	김용판(국) 송재호(민) 이해식(민) 전봉민(국) 조은희(국)
문화체육관광	4	김승수(국) 배현진(국) 이개호(민) 임오경(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	위성곤(민) 윤준병(민) 이달곤(국) 이원택(민) 정희용(국)
산업통상자원부	8	김경만(민) 김성원(국) 양금희(국) 이동주(민) 이장섭(민) 이철규(국) 정일영(민) 한무경(국)
보건복지	6	김미애(국) 이종성(국) 정춘숙(민) 최연숙(국) 최혜영(민) 한정애(민)
환경노동	4	김형동(민) 윤건영(민) 이수진(민) 임이자(국)
국토교통	8	김정재(국) 맹성규(민) 민홍철(민) 박상혁(민) 박정하(국) 서범수(국) 유경준(국) 조오섭(민)
여성가족	2	장경태(민) 정경희(국)

2023년도 국정감사(21-4)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통계

당적 등 2023. 11. 8. 국정감사 종료시점 기준

1 교섭단체별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선정의원(명)	44	42	0
전체의원(명)	168	111	18
선정비율(%)	26.19%	37.84%	0%

※ 국회의장 제외.

2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이상
선정의원(명)	45	21	12	4	4
전체의원(명)	155	69	41	20	12
선정비율(%)	29.03%	30.43%	29.27%	20.00%	33.33%

※ 김진표 국회의장(5선) 불포함

3 의원 성별

구분	전체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여성의원(명)	58	17	29.31%
남성의원(명)	239	69	28.87%

※ 감사위원 297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9.53%임

4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1	75
전체의원(명)	47	250
선정비율(%)	23.40%	30.00%

※ 지역구 현역의원 251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5 지역구 의원의 광역시도별

광역시도	선정의원	전체의원	비율(%)	광역시도	선정의원	전체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17	49	34.69%	강원도	5	8	62.50%
부산광역시	5	18	27.78%	충청북도	3	8	37.50%
대구광역시	5	12	41.67%	충청남도	3	11	27.27%
인천광역시	4	13	30.77%	전라북도	4	10	40.00%
광주광역시	1	8	12.50%	전라남도	2	10	20.00%
대전광역시	2	7	28.57%	경상북도	6	13	46.15%
울산광역시	1	6	16.67%	경상남도	5	16	31.25%
세종시	0	2	0.00%	제주도	3	3	100.00%
경기도	9	56	16.07%	계	75	250	30.00%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경기도는 57명 중 국회의장 지역구인 경기수원무 1명 제외

2023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현장모니터링과 비대면 모니터링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정함.

1. 기본 자료 조사

국정감사에 참가하는 모든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각 상임위원회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전수 조사함.

- (1) 피감기관별 질의횟수(주질의, 보충, 추가질의 합산횟수)
- (2) 피감기관별 질의시간 합산
- (3)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정리

*의사진행, 자료제출발언은 포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조사 및 평가

- (1) 질의내용 분류 및 평가

- 질의내용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 못함이나 해당사항 없음 1점'으로 평가함.

- ① 부정비리지적(피감기관이나 그 직원이 잘못된 사항 지적)
- ② 대안, 법제도 개선(피감기관의 법제도, 정책미흡 개선방안 제시)
- ③ 자금집행(재정)문제점(피감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예산을 잘못 사용한 사례 지적)
- ④ 시정조치점검(과거국감 지적에 대해 시정이 되었는지 점검)
- ⑤ 정책관련 잘못 지적(피감기관의 정책 문제점 조명, 사례제시)

- (2) 중복질의유무(다른 의원의 질의에 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질의)

- (3) 감점요인 평가

- 질의 중 다음과 같은 언행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감점함.

- ① 질의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시간 안 지키기, 상대의원 비난)
- ②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딴 짓)
- ③ 국감방해 원인제공(파행유발, 의사진행 국감방해)

3. 국정감사모니터 위원 평가 및 우수(못한)의원 추천 기준

국정감사 내용 평가의 경우, 아래 다섯 가지 준거(원칙)에 의해 5 단위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못함, 아주 못함) 척도로 평가하여 우수의원과 못한 의원을 추천함.

- ① 적시성: 감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기(적시)에 이루어 졌는가?
- ② 실효성: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 ③ 충실성: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정당하며 논리적이고, 정보는 충실한가?
- ④ 국익/공익성: 국가발전과 더 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가?
- ⑤ 공정성: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이 없이 공정한가?

- (1) 교차평가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 (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함.

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 (2)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의 평가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본 모니터단이 입수한 자료와 비교,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함. 잘한 의원이 많거나, 평가가 비슷한 경우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함.

5. 결과 발표 및 국정감사 평가

전체 국정감사 평가대상 국회의원 중 위원회별로 25%를 우수의원으로 평가하여 국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함.

①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②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③ 헌정대상 등 의정감시의 “7종 국익(國益)기능”

① 국감현장모니터링은 국민주권원리, 헌법(제50조)국회법(제75조)국감조법(제12조)에 근거한 의사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다
 ② 대학생단체 등 270개 NGO연대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년된 국감모니터 전문단체이며, 그 주관 단체인 ③ 법률소비자연맹은 32년된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NPO로서, 국회사무처(유인태/하단참조)가 방해 하여도, 이미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 모니터만으로’ 시행해온 의정종합평가(대한민국 헌정대상)가 국내외적으로 정착(미국/일본/영국 등의 NGO/국회의원/교수/변호사들의 롤 모델이 됨)되었듯이, 현장 모니터 방해에도 모니터/평가는 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 방해는 7종 국익기능을 저해시키는 반국익/반민주 행태다.

1. 국회(의원)의 민주성 상징 --대한민국 국회엔 24년(주관단체는 32년)동안 “단 한번의 공정성 시비없이” <혹간 폄훼/비방보도는 법적/윤리적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즉시 드러나곤 함> 국회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모니터/평가 해온 헌정대상(의정종합)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 즉 시민의 권력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랑(공지)이며 당당한 민주성 상징이 된다.

2. 국회(의원)의 존재감 회복 --국민들은 TV등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씹질하는 것만 보다가,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국민민복을 위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대학생이나 시민(대표)들이 비로소 국회의원의 노고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되게 된다.

3. 국감위원의 긴장감 조성 --감사현장에 NGO대표가 불참한 2020~21년도 국감은, 텅빈 감사위원회, 짧은 국감일정-형식적 소회, 국가존망과 민생외면, 부정부패를 비호/감싼다는 의혹속에 여/야간 막말과 난장판이 연출되었는바, NGO의 현장모니터는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속에 충실감사를 하도록 압박하는 기능이 매우 크다.

4. 피감기관의 긴장감 조성 --피감기관이 국감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모르쇠’ 답변이나 ‘불성실하게 버티기’ 답변을 하기도 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 감사현장에서 시민단체(NGO모니터단)가 피감기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여 겸손하고 정직하게 수감하게 만든다.

5.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능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Sir. Acton>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예방/적절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평가/공개하는 것은 법치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권리요 책무다.

6. NGO 정책과 국정 협치 --시민사회단체(NGO)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확인되는 국정상황을 이해하여, 국가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적 정책개발과 건전한 비판과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UN이 정부(GO)의 주장만이 아닌, 비정부 민간기구(NGO)를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공동발전을 위한 협동원리이며 거버넌스(협치)인 것이다.

7. 시민 대학생들 정치학습 --청년/대학생 및 시민들이 국감현장을 직접 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학습하게 된다. 정해진 룰(rule)에 따라 국정현안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으며, 나라사랑/나라걱정을 하게 되는 등 민주정치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가 조폭·흉위병 같은 폭력·직권남용(임종 총분)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헌법·행정법·국회법 등을 위반(2019.10.어떤 행정절차도 없이)하며, 2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32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을 모함·방해를 자행!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등 민·형사적 법적조치를 조만간 취할 예정이다.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 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6~30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람.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 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 이 필요하다고 봄.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봄.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봄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1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알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봄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봄니다.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국정감사 국민복상 선정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5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국감평가 주요 목차

- 2023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의원(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6
- 2023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주요통계(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포함) 7
- 2023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8
-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모니터단의 국회의정감시 7종 국익(國益)기능 9
- 감사위원이 국정감사장에 좌정해야 할 이유 10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14

◆ 2023년도 국정감사 총평 14

- 1. 제21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C학점 14
 - 가. 개관 15
 - 나. 2023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실망 15
 - 다. 2023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와 성과 17
 - 라. 2023년도 국감행태의 문제점과 특징 18
 - 마. 2023년도 국정감사의 눈에 띈 쟁점 19
- 2. 2023년도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별 약평(자세한 것은 IV. 상임위 활동 요약 참조) 20
- 3. 국정감사 일자별 약평 (자세한 것은 IV. 국정감사 일정별 요약 참고) 22
- 4.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분석 29
 - 가. 총괄 : 질의횟수 총 6099회, 질의응답시간 653시간 6분 9초 29
 - 나. 질의횟수가 저조한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4
 - 다. 질의응답시간이 저조한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4
 - 라.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질의응답 분석 35
- 5. 제22대국회 국감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36
 -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붕어빵'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36
 -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36
 -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37
 -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37
 -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수박 겉핥기'식 국감 종식 38

◆ 2023년도 국정감사 국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39

- 1. 국정감사 국민복상(모범의원) 39
 - 가. 선정근거와 연혁 39
 - 나.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가나다 순) 40
 - 1) 김영주 국회부의장(4선, 보건복지위원회) 40
 - 2) 박병석 국회의원(6선, 전 국회의장, 외교통일위원회) 44
 - 3) 정우택 국회부의장 (5선, 행정안전위원회) 48
- 2. 국정감사 국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52
 - 가. 평가기준 및 방법 52
 - 나. 선정결과 및 사유, 활동을 약술함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53
 - 1)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3선) 53
 - 2)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3선) 56

3)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59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명단 별첨함)	62

II. 2023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63

1. 끼어들기 파행은 있었으나 지난해보다 줄어듬	63
2. 2023년도 10개 이상 수감기관 동시감사 27일, 부실국감	68
가. 동시국감의 현황	68
나. 21대 국회 4차년도 동시국감의 답변 현황 분석	72
1) 조사목적	72
2) 총괄	73
3)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분석	73
4) 감사위원 중 한 감사위원(국회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경우	73
3. 11시를 넘긴 심야국감은 19번	76
4. 감사시간이 전체 2시간이 안된 곳은 10곳	78
5. 조기 종료 국감은 11곳으로 줄어	80
6.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계속	83
7. 국회의장 외교 동행 등 출장 의원의 국정감사 불참	85
8. 주요 핵심당직자 등의 국정감사활동	86
9. 장관 겸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불참	91
10. 2023년도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은 여전함	92
11.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실시간 제공	97

III. 2023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話題性) 자료 100

1. 19개 부처 장관 국정감사 :“출마 하십니까?”질의도	100
2.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난해(2022)보다 대폭 줄어	106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61개 국감장에서 등장	106
4. 21대 국회 국감의 단골소재가 된 방탄소년단(BTS)	107
5. 후쿠시마 원전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15개 위원회에서 487회 정도 언급	109
6. 국토교통위원회의 기승전 '양평' 국정감사	110
7. 가짜뉴스 : 15개 상임위의 국정감사장에서 724회 정도 거론	111
8. 2023년도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소품 일부사례	112
9. 2023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참고인 사례	118
가. 일반증인 및 참고인 개요 : 증인 157명과 참고인 95명 출석	118
나. 언론에 보도된 증인 및 참고인 사례	130
10. 2023년도 국정감사장 앞 시위(언론보도 중심)	145
11. 2023년도 국정감사장의 '웃음소리' 분석	149
12.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곤욕을 치른 감사위원	165
13. 거취공방이나 수난을 당한 피감기관 내지 기관장	171
14. 낙하산 인사 등 논란은 9개 위원회 19곳 국감장	179

IV.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위원회별, 일자별 상황 정리 191

1.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활동(상임위 보도자료와 회의록을 중심으로)	192
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간사 소병철·정점식)	192
나.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간사 김종민·윤한홍)	198
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 간사 유동수·류성걸)	201
라.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 간사 김영호·이태규)	210

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간사 조승래·박성중)	213
바.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 간사 이용선·김석기)	215
사.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간사 김병주·성일종)	217
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간사 강병원·김용판)	221
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현, 간사 김윤덕·이용호)	224
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간사 여기구·이달곤)	229
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재정, 간사 김한정·김성원)	232
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간사 고영인·강기윤)	239
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간사 이수진·임이자)	246
하.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재옥, 간사 박주민·김성원)	255
거.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 간사 신현영·정경희)	257
참고 2022년도 상임위국정감사	258
2. 일자별 국정감사 활동(모니터 보고, 언론보도 중심)	284
가. 10월 10일(화) :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등 10개 상임위 국정감사	284
나. 10월 11일(수) :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 등 8개 상임위 국정감사	286
다. 10월 12일(목) : 과방위의 원안위 국감 등 10개 상임위 국정감사	287
라. 10월 13일(금) :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 등 10개 상임위 국정감사	288
마. 10월 16일(월) :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 등 11개 상임위 국정감사	291
바. 10월 17일(화) :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감 등 12개 상임위 국정감사	292
사. 10월 18일(수) : 복지위의 건보공단 국감 등 4개 상임위 국정감사	295
아. 10월 19일(목) :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 등 12개 상임위 국정감사	297
자. 10월 20일(금) : 교육위의 서울교육청국감 등 10개 상임위 국감	300
차. 10월 23일(월)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 등 10개 상임위 국정감사	302
카. 10월 24일(화) : 행안위 전북 국감 등 10개 상임위 국정감사	305
타. 10월 25일(수) : 농림위의 해양수산부 국감 등 3개 상임위 국정감사	307
파. 10월 26일(목) : 문화체육위의 문체부 종합감사 등 10개 상임위 국정감사	309
하. 10월 27일(금) : 국토위의 종합감사 등 8개 상임위 국정감사	311
거. 11월 2일(목)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313
너. 11월 7일(화) :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315
더. 11월 8일(수) : 국가인권위 등 국정감사	318
참고 2022년도 국정감사	319

V. 제21대 국회 제4차년도(2023년도)국정감사 이모저모 326

1. 2023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 조정 등	327
2.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 최다선인 6선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297명	328
3.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2022년도 783개)	330
4. 5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국감 56회	333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유튜브) 생중계	344
6. 2023년도 국정감사 감사진행 시간은 1180시간 5분	346
7. 지방자치단체 국감 : 2개 위원회 5일간 7개 시·도 대상	349
8.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356
9. 국정감사중(시작전 포함)위원회 2023년도 전체회의 32회	381

▣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국정감사 및 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표 384

2023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5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 2023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 22명 공동단장)은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5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활동을 부산, 세종, 인천, 수원, 서울 등 국회본청 외부에서 한 국정감사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온라인(비대면)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 하였고, 297명 감사위원 전원을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25년 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과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평가기준(계량화한)에 의거하여 선정된 제21대 국회 제4차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을 선정, 공개하며, “2023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를 지난해와 같이 2024년 1월 3일(수) 15시, 국회 헌정기념관(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시상식과 함께 개최합니다.

■ 2023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 제21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C학점

가. 개관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4번째 국정감사의 성적을 간 이평가(10.24)와 같은 ‘C’ 학점으로 평가한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의 권능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 표자들인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한 눈 에 파악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지, 영토를 보위하며 국리민생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소야대 국정감사로 새 정부의 1년 6개월간의 정책방 향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국정감사임에도,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 점 변경, 후쿠시마 원전수, 2024년 예산안 등의 특정이슈에 집중하였고, 여 당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집중 공략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 정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비전제시는 상대 적으로 빈약했고, 늘어난 무소속 등 비교섭 단체의 활동도 두드러지지 않았 다.

나. 2023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실망

- 국정감사 시작 전(前)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각오와는 다르게 총선표발 국감, 이재명 국감, 양평 국감을 하였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 로 인한 피해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 서 국방위원회가 장관 인사논란으로 대립 파행(2023. 10. 10, 다행히 저녁 에 시작은 되었음)하였고, 남북관계를 집중조명해 보는 통일부에 대한 국 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윤미향 의원의 행보(일본 조총련계 행사 참여)로 충돌하여 국감 종료 선언도 없이 마무리되었다.(2023. 10.11)

《국감시작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각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1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으로,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6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정하고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총선이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위 선거망 보안 점검을 통해서 해킹 우려가 발표되었음에도 여·야는 사전투표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왜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선거철 국정원 개입' 논란 등 정쟁으로 비화시켰다.(2023.10.13.)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헌법 제97조)인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임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감사원의 분열)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연감사를 하는 등 국민을 실망케 하였다(2023.10.13).
- 2021년에는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의원석 손팻말' 설치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여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거나 귀한 국민의 시간을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데 허비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2022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하였고, 교육위원회 역시 팻말이 설치되었으나,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여러 위원회에서 팻말이 설치되었고, 여가위의 경우에는 팻말과 더불어 장관퇴장요구로 파행했다. 2023년도에는 과방위의 KBS 국정감사가 일시 파행을 빚었으며, 국방위 첫날(10.10)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피켓시위 때문에 파행을 빚어 아쉬움을 주었다. 다행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의해서 회의장에서 피켓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2023.10.24)

- 지난해(2022)와 같이 구 권력에 의해 임명된 인사에 대한 ‘알박기’ 인사 논란과 신 권력에 의해 임명된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식 국정감사가 있기는 있었지만, 지난해(2022)처럼 심각한 막말과 파행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가 코로나 19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4개 반을 나눠서 현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은 지탄을 받았다. 이런 지탄을 의식해서 인지 국회 속기록을 지난해(2022)보다 조금 일찍 공개했으나, 영상회의록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2023. 12. 8.기준)
- 지난해(2022)에는 10월 19일 이후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헌법상의 권한인 국정감사가 중단, 파행,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으나, 올해(2023년)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명예훼손) 등 의혹으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왜 국정감사날 그렇게 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는 했으나,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다. 2023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와 성과

-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이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간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였다.
-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선거망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가 발표되고, 사전투표 및 선거망에서의 해킹 가능성이 조명되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국정감사였다.
- 2024년도 R&D 예산 조정,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여야의 견해차와 정부의 입장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논란과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금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세계경제의 위기. 삼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와 경기하방 전망 시대에 국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고, 고독사 등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촘촘한 복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으며, 주위에 퍼지고 있는 마약 실태와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비리, 산하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국민연금 재정 안정 문제, 전기요금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실상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
-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실태와 주택가격이 앙등하였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가격 안정화와 주택 보급을 위해 국회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깨닫게 했다.
-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침공을 계기로 북한의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에 의한 수도권 방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했으며, 9·19 군사합의 조명과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방어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함을 절감했고, 생활 물가의 상승 등 민생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라. 2023년도 국감행태의 문제점과 특징

<<이하 생략>>